

지구촌에 경주남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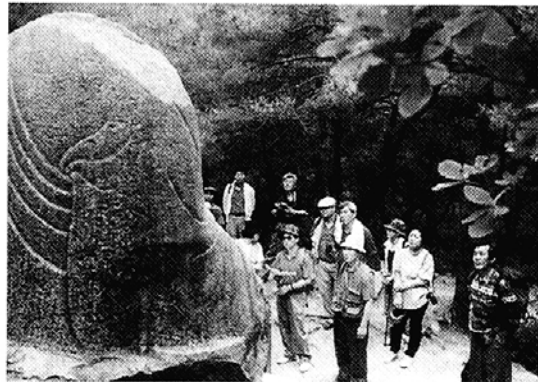
석불연구회 올해 홈페이지 개설 시-그림-사진 등으로 석불 소개

"아낌없이 지워버린 내 얼굴을 생각하며 마주친 그 얼굴이 내 얼굴이예요"

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이화여대 의대교수).

지난 수년간 경주 남산을 답사해온 석불연구회는 남산 부처님들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해 놓고 있다. 김문역시인이 현재 30여 석불에 대한 시 30여편을 짓고있으며 김복실 시인 또한 관련 시를 준비하고 있다. 김대규학박은 부드러운 선의 동양화로, 하호숙학박은 서양화와 판화로 옮기고 있으며 박성운학박과 대구의 노춘애학박은 남산관련 그림을 슬라이드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규학박은 5월 1일부터 6월까지 삼정동 '예미의 집'에서 석불소품전시회를 가지며, 2000년까지 경주 남산의 세계인에게 소개된다. 이렇게 경주 남산의 돌부처들을 예술 작품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경주 남산의 석불들이 시와 그림, 판화로 재탄생되고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소개된다. 김문역 시인이 경주 남산 냇골 목없는 부처님을 소재로 시를 읊었다

문 자료를 망라해 놓을 예정. 석불 관련 시와 그림 판화 사진 뿐 아니라 남산 지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며 석불과 관련한 설화까지 발굴 수록하겠다고 석불연구회 서현 부회장은 밝혔다. 이미 신라 율령님이 향가 '제망매가'를 짓고 읊은 장소가 석각마애삼존불상이라는 조사를 마쳤다.

석불연구회 이근후회장은 "경주 남산의 석불이야말로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귀중한 성보"라면서 "우리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승가대학인 군종장교 지원 가능

국방부 군종실 밝혀

중앙승가대학교 학인스님도 군종장교요원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국방부 인사 참모부 군종실(실장 박병욱 목사)은 지난 2월1일 중앙승가대 기획실에서 보냈던 군종장교 임용자격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3월4일)을 통해 "군종장교의 임용은 고등교육법(법률 제5439호)의 규정에 따라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소속 종교단체에서 승려, 목사, 신부의

자격이 인정되고 당해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 선발을 거쳐 임용하고 있으며, 선발대상자 응모자격 등에 관하여는 11월말경 발표되는 군종장교요원 선발계획을 참고하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는 교육부에서 지난해 3월1일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중앙승가대학이 학사학위 수여에 있어 군종장교요원 선발지원 자격도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김재경 기자

4월 9일~5월 28일 매주 금요일 조계사서

한국불교 근현대사 강좌 연다

범불교연대회의, 조계사가 주최하고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가 주관하는 한국불교근현대사 강좌가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조계사 제2교육문화회관 강의실에서 열린다.

'불교사 바로보기-개항에서 불교정화까지'라는 전체주제로 6차례 열리는 이번 강좌의 첫 강의를 4월 9일 도법스님(남산 실상사주지)의 '불교의 역사 그리고 민족'이다. 제2강은 16일 '근대불교의 시각과 전개(정광호, 인하

대 사학과 교수), 제3강은 23일 '근대불교교단사의 이해(박희승, 조계종교육과장)', 제4강은 30일 '불교계의 민족자각 불교계의 지향(임혜봉스님)'이 개설된다.

5월7일에는 제5강 '불교개혁의 시도와 좌절(김광식, 근현대불교사 연구가)', 28일 제6강 '불교정화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오성스님, 선우도량 연구실장)'의 강좌가 열린다. 교육비 2만원. (02)736-0386

김원우 기자

뉴스 & 뉴스

조계종 행자교육원 273명 입학

조계종 제16기 행자교육원이 25일 지사사 민덕전에서 개원했다.

이번 행자교육에는 총지원자 307명 중 34명이 서류심사와 신체검사에서 탈락, 남행자 160명 여행자 113명 등 총 273명이 입학했다. 이윤호 기자

군위 마애불 첫 발견 아니다

3월 18일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군위군 소보면의 마애삼존불(본지 215호 2면 참조)이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된 불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주(계명대 역사학과 박사과정) 씨가 94년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한 '동일신라시대의 팔공산 지역 석불상 연구'에서 위성리 마애삼존불의 실체를 처음 소개했기 때문. 조씨는 또 97년 11월 간행된 <현대불화> 제 1집에도 '군위 위성리 마애삼존불 연구'라는 9쪽 분량의 논문을 게재했다. 오종욱 기자

은혜사 계율도량 지정 권의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1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은혜사를 계율도량으로 지정할 것과 종단사태와 관련 통도사 밖에서 거처하고 있는 진계대회상 청하스님이 조속히 통도사에서 주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중흥의 초석이 될 계율도량이 시급하다"며 "은혜사를 계율도량으로 지정해 행자교육과 단일계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중앙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은자 기자

김원우 기자

통일준비 불교정책 워크숍

민족화합불교추진위는 24일 오후 3시 조계종포교인 회의실에서 '남북불교협력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조성범씨(남북불교발전 사무총장)를 초청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불교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족화합 불교추진위는 이날 북한에 '비로보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종교간 대화의집 개원

종교간 대화의 집 '위로의 샘터'가 4월 5일 부천시 옥길동에 개원한다. 곤술라라 수도회가 운영하는 '위로의 샘터'는 종교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고 타종교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누구든지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다. (02)685-1803 이경숙 기자

봉축기념 서울 열기구축제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신도회·한국사회체육진흥회가 공동주관하는 '부처님 오신날 기념 서울 열기구 축제'가 5월 20~21일 여의도 63빌딩 앞 고수부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열기구 30대에 선수 2백여명이 동원된다. 이틀간 1만여명의 시민이 탑승할 수 있는 이번 축제에는 최소 2억원의 예산이 기업체의 협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법당불사금 뇌물 아니다"

김태복장군 선처 탄원서

증단합-조계종, 청와대에 전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포교원(원장 정현)은 23일 청와대와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앞으로 최근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복 前 17사단장(53·소장·육사26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김태복장군과 관련된 공소 내용 5건중 4건은 법당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법당 건립 불사금 등을 뇌물 수수로 기소하여 종교적 편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적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무리한 기소임으로 기소 취하 및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사람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법적응답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된 김 장군은 국방부 법당 총무 등을 역임하는 등 각 부대 근무시 적극적인 불교활동을 전개했다. 육군 검찰은 98년 2월 101 여단 재직시인 98년도에도 건축물 허가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98년 11월 천용택 국방장관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김 장군이 이를 거부하자 가택수색은 물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등 혹독한 재조사를 받아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기소내용중 시주금이나 시주물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대 장병들의 정신 전력에 도움이 되는 법당 건립에 쓰여졌고, 시주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을 뇌물 수수로 기소하는 것은 보시를

한 사람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법적응답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된 김 장군은 국방부 법당 총무 등을 역임하는 등 각 부대 근무시 적극적인 불교활동을 전개했다. 육군 검찰은 98년 2월 101 여단 재직시인 98년도에도 건축물 허가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98년 11월 천용택 국방장관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김 장군이 이를 거부하자 가택수색은 물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등 혹독한 재조사를 받아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암사 탕화 등 도난

선암사(주지 인곡) 팔상전 화엄변상도가 24일 새벽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선암사 팔상전 화엄변상도는 1780년에 조성됐으며 세로 269.2cm 가로 247.5cm 크기 로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돼 있다.

한편 선암사는 7일 대웅전 탕화도난에 이어 또 탕화를 도난당하자 경보장치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이번 2건의 선암사 탕화도난사건과 관련 내부와 외부 문화재 전문달이범들의 소행으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경북사찰 연쇄해불

용의자 18일 검거

영주경찰서는 지난해부터 경북 영주 이산면 관음사(주지 도기), 보광사, 영주 포교당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해불사건의 용의자 조병록(32)씨를 18일 검거했다. 조씨는 특수절도 전과가 있으며 정신이상 증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무당에 운영되는 사찰인 광명사에서 기도를 했으나 기도 효험을 받지 못하자 이같은 해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 도굴-밀매단 검거

기림사복장등 유물 2백여점 압수

불상의 복장유물을 다량 출처 암거래한 일당 9명이 검찰에 검거돼 기림사 대적광전 석가모니 불상 복장유물 등을 비롯해 문화재 200여점(1백억원 상당)을 압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담당검사 최선용)는 21일 문화재 도굴·매매업자인 손수석(64) 김만태(42)씨 등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매매업자 오모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

편 도굴범 이모씨(52)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97년 3월 기림사 석가모니 불상을 파손하고 금니천룡탱화 등 복장물 14점을 빼내다 이어 98년 2월 선암사 응진전·불조전의 후불탱화를 오려내 훔친 혐의다.

검찰이 압수한 문화재 가운데 성보문화재는 총 33점. 기림사 복장유물 11점과 선암사 53불화도 중 7불화에서 절취한 부분 탕화

'불교TV살리기' 기획팀 결성

캠페인 광고등 4개프로 신설

'경영정상화 대책' 연속좌담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TV(대표 신허스님)가 8일 결성된 기획팀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방송 제작 재개, 캠페인 전개 등 재기의 의욕을 보이고 있다. 불교TV는 캠페인 광고를 포함한 4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29일부터 방송에 들어가는 등 프로그램 제작 재개로 '불교TV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0분간 방송될 '연속좌담', 박광서교수(우리는선우 공동대표)의 사회로 교계 인사와 방송 전문가들을 초청해 불교TV 경영 정상화와 교계 현안을 위한 대책을 들어본다. '이영숙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혈맥까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리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원범하게 절하는 법
◆얼굴 금강경 목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리고 지끈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동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 전에 한껏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파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법

◆장폐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외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정진(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통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진 도인제조건경법, 108배2회, 외선호흡법, 수행상당 점검, 축원 기도 7회

출가예정자 수행체력, 특별소원취하기도 수행자 성장소멸염정진 수행자를 모집한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차,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울곧게 절하시는 고향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를 앞박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기가 끼지 않는 복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배보궁, 두리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미얀마 큰스님 초청

- 위빠싸나 산림 안내(위빠싸나 수련회) -

미얀마의 양곤 참배 선원의 조실이신 우·자나카 사야도(큰스님)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위빠싸나 산림을 개최합니다.

미얀마에 가지 않고 세계적인 위빠싸나 지도자이신 사야도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이번 산림에 수행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 비구·비구니·일반인(종교 관계 없음)

일시 : 1999년 5월 6일 ~ 5월 19일(2주간)

장소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다대리 반야사 (이천시내에서 20분 거리)

회비 : 30만원

* 알찬 산림 위해서 남·여 각 10명씩만 선착순 접수합니다. (단, 스님은 접수 순위에 예외임)

문의처 :

서울(02)548-2914, 652-6376

511-6070~4(봉은사)

여주(0337)884-0107~8

출판 전문가 모집

논인출판부에서는 법음을 편찬하는 성스러운 작업에 함께 할 출판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사 재

•지 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로 취재, 편집, 교정 등 실무에 능한 자

•고 비 서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제 출 처 :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전화 : 577-5800 교442번 팩스 : 577-5840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자료나 작품을 첨부해 주십시오.

보급 안내

본 개운사에서는 천불전 건립기금 조성 일원으로 달마도를 보급합니다. 승남 40여년 수행하면서 서예, 도양화, 달마 등 많은 작품을 해 왔고 2000년도 제2회에도 달마전시전을 가져서 많은 불자들에게 보급시켜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산9

가야산 개운사

0348)958-1276
018)359-1276 스님 직
02)511-7579